

【서평】

아비샤이 마갈릿 저, 『품위 있는 사회』, 신성림  
역, 동녘, 2008

—‘모욕’이라는 도덕적 악에 대한 어떤 철학 ‘이야기’—

장은주

1.

비록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서구의 주류 철학자는 아니지만 영미권이나 독일의 사회 및 정치 철학 논의에서도 때때로 만만치 않은 무게감을 가지고 등장하곤 했던, 이스라엘의 철학자 아비샤이 마갈릿의 『품위 있는 사회』가 드디어, 영역본 출간 이후 12년 만에 그리고 그 영역본을 바탕으로, 우리말로 번역 출간되었다. 그가 이언 바루마와 함께 쓴 『옥시덴탈리즘』이 작년에 번역되었는데, 이번에 그의 본격적인 철학서가 번역된 것이다. 이 책은 이상적인 사회의 규범적 원리를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실 사회를 비판적으로 진단하고자 하는 사회 또는 정치철학서다. 그런데 조금은 놀랍게도 우리가 그런 종류의 책에서 통상적으로 기대하듯이 어떤 ‘정의’의 이상 같은 것을 다루지 않고, 오히려 그 이상에 대비되고 부분적으로는 그것에 비판적이기까지 한 사회적 이상을 다루고 있다. 그 이상의 이름이, 조금 어색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품위 있는(decent) 사회’다. 마갈릿에 따르면 품위 있는 사회는 “제도가 사람들을 모욕하지 않는 사회”(15쪽)다. 이 사회는 “구성원들이 서로 모욕하지 않는” ‘문명화된(계명曆

명된; civilized) 사회’와도 구분되고 무엇보다도 통상적으로 이해되는 ‘정의로운 사회’와도 다르다. 그에 따르면 “정의로운 사회는 모두 품위 있는 사회여야 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17쪽) 바람직한 사회는 꼭 정의롭지는 않더라도 반드시 적어도 그 제도가 ‘모욕 금지’라는 규범적 원칙을 실현한 품위 있는 사회이기는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은 그와 같은 제도적 모욕 금지라는 규범적 이상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이상을 어떻게 구체적인 사회 제도들에 적용해야 하는지를 놀랍도록 명료하고 평이한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사실 나는 이미 2004년에, 그것도 이 『철학사상』에 마갈릿의 이 책이 담고 있는 기획을 사회정의의 이념과 대비시켜 비판적으로 검토한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다.<sup>1)</sup> 이제 이 책의 번역본 출간을 계기삼아 나는 이 글에서는 이 책이 담고 있는 품위 있는 사회 기획 전반에 대한 체계적·비판적 검토보다는 이 책이 우리나라의 맥락에서 가질 수 있는 의의 같은 것에 대해서만 짚막하게 논의해 보려 한다.

## 2.

우리말에서 모욕의 사전적 정의는 사람을 깔보고 욕되게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높은 지위에 있는 어떤 사람을 깎아내리고 업신여기는 언행 같은 것이 모욕이다. 그리고 이런 모욕 행위는 대개 도덕적으로 나쁜 일로 취급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모욕 행위는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적인 처벌의 대상이기까지 하다. 최근에는 심지어 이른바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려는 움직임마저 강력하게 일고 있을 정도다. 인터넷 상에서 남을 심하게 비방하는 댓글 정도만 달아도 수사

1) 장은주, 『사회정의와 인간의 존엄성 - 마갈릿의 ‘품위 있는 사회’의 기획에 대한 비판적 검토』, 『철학사상』 제 19 호, 2004. 이 글은 나의 책 『생존에서 존엄으로. 비판이론의 민주주의이론적 전개와 우리 현실』(나남, 2007)에 제 7 장으로도 수록되어 있다.

를 해서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만큼 모욕 행위를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리라.

그러나 마갈릿이 이 책에서 금지되어야 할 모욕으로 보고 있는 것은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다. 오히려 어쩌면 마갈릿은 그와 같은 사이버 모욕죄 같은 것을 자신이 문제 삼는 제도적 모욕의 가장 원초적인 예의 하나로 들지 모른다. 그가 말하는 모욕은 어떤 사람을 사람이 아닌 것처럼 대하거나 그에게서 기본적인 통제력을 빼앗거나 또는 그를 ‘인간의 가족’으로부터 배제시키려 하는 행위나 조건이다. 형사적으로 처벌될 수 있는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려는 발상의 바탕에 깔린 의도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를 매우 자의적일 수도 있는 잣대를 가지고 국가 권력을 통해 통제하겠다는 것인데, 그런 법은 국민을 바로 마갈릿적 의미에서 모욕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 법은 기본적으로 국민을 말할 수 같은 것을 해서는 안 되는 존재로, 경찰이나 검찰이 나서야 험한 말을 겨우 자제할 줄 아는 어린 아이 같은 존재로 전제하면서 국민들이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정립하지도 자유롭게 표현하지도 못하게 움아맬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사이버 모욕죄 같은 것이 입법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마갈릿이 철학적으로 싸우고자 하는 품위 없는 사회, 말하자면 ‘모욕 사회’의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될 것이다.

마갈릿이 문제 삼는 모욕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라면 예컨대 ‘시간강사’ 같은 사람들이 사회나 대학으로부터 받는 모욕이다. 사회가 그들의 높은 학력이나 대학 교육이라는 직업 활동에 대해 상응하는 것처럼 보이는 평가를 해 주지 않아서가 아니다. 마갈릿 식으로 보면 그런 것은 강사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명예나 ‘자부심’(self-esteem)을 깎아내리는 ‘훼손’(insult: 우리말 역자는 이를 ‘무례’로 번역했다) 행위일 수는 있어도 모욕은 아니다. 그에 따르면 모욕은 ‘자존감’(self-respect)을 손상시키는 행위나 조건과 관련되어 있다. 모욕은 “인간이 인간이라는 사실만으로 누릴 자격이 있는 존중을 침해”(32쪽)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시간강사는 방학에는 먹고 살아

서는 안 되는 ‘비인간’이다. 제대로 된 계약 하나 없이 고용 관계가 성립하고, 관련 교수나 대학의 자의에 이리 저리 휘둘리며 제대로 된 자기 통제력과 미래 전망을 갖춘 삶을 살 수 없는 존재다. 시간강사가 느끼는 모욕감은, 단순히 주관적이지만은 않은, 타당한 규범적 이유가 있는 모욕감이고, 우리 사회가 이런 시간강사의 처지를 지금처럼 계속 그대로 두는 한 우리 사회는 마갈릿적 의미에서 품위 없는 모욕 사회다.

어디 그 뿐일까?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 비율의 절반을 이미 훌쩍 넘어 섰다는 ‘비정규직’ 문제만 보더라도 우리 사회는 심각하게 품위 없는 사회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같은 일을 해도 임금은 절반 밖에 안 되고 사회보장은 턱 없이 모자라며 마치 일회용품처럼 회사의 필요에 따라 고용과 해고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이지만 사람대접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당하는 것이 모욕이다. 이제 경제 위기 속에서 점 점 더 그 숫자가 늘어날 ‘실업자들’과 ‘노숙자들’, 또 예컨대 ‘가난뱅이들’과 ‘장애인들’, 그러니까 사회의 가장 낮은 밑바닥 경계에 있기에 사회의 제도들이 그들을 거부할 경우 이제는 사회 밖으로, ‘인간의 공동체’ 저 편으로밖에 쫓겨날 곳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구조적이고 체계적으로 당하는 일이 모욕이다. 우리 사회 최악의 모욕은, 마갈릿이 마이클 월처를 인용하며 걱정하듯이(285쪽), 우리 사회의 합법적 구성원이 아닌 사람들이 겪고 있다. 단지 출입국법을 위반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돈을 벌려 했다는 이유로 지금 어떤 사람들은 토끼몰이 식 단속을 피해 다니다 죽거나 다치고 어떤 이주 여성 노동자는 수갑을 찬 채 백주의 대로에서 용변을 보아야만 했다고 한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모욕은 “바로 우리 집 앞에서”(153쪽)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마갈릿에 따르면 이런 일상적인 모욕은 단순히 사람들의 노동과 성취나 기여에 대한 정당한 분배에 초점을 둔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정의가 실현하기 매우 힘든 이상이기도 해서이지만, 무엇보다도 정의의 이념은 모욕과 같은

사회적 불의 또는 도덕적 악에 제대로 접근할 수 없는 규범적 축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이다.

### 3.

어쩌면 고개를 가우뿔거리리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다. 모욕을 꼭 마갈릿처럼 이해해야 하는지, 정의의 이념만으로는 정말 그가 말하는 모욕 문제에 제대로 접근할 수 없는지 등에 대해 벌써부터 많은 의문이 들지도 모른다. 그런 문제 하나하나를 여기서 다 따질 수는 없다. 그러나 내 생각에 마갈릿의 이 책이 우리의 맥락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의의 중의 하나는 그것이 바로 이렇게 때로는 생경하고 거친 개념들과 접근법을 통해 우리에게 철학을 하는 색다르지만 매우 훌륭한 모델 하나를 제공해주는 것처럼 보인다는 데 있다.

마갈릿은 이 책에서 전개한 품위 있는 사회에 대한 자신의 기획을, 롤스의 정의에 관한 ‘이론’이나 프랑크푸르트 학파 전통의 ‘비판이론’ 등과 대비해서, 하나의 ‘이야기’로, 그러니까 “개념들을 주인공으로 삼은 이야기” 또는 “개념은 개념으로 남으면서 현실을 비판할 근거가 되는 유토피아의 그림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300쪽)로 제시한다. 아마도 이것은 그가 보통 사람들의 일상적이고 직관적인 판단에서부터 출발해서 그들과 교감하고 그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말하자면 참여적 비판을 위한 철학함을 추구하기 때문인 것처럼 보인다. 그는 그 자체로 정서적이지는 않지만 어떤 식으로든 보통 사람들의 일상적인 감성과의 연관을 가질 수밖에 없는(302쪽 참조) 도덕적 개념들을 다루는 철학은 특히 그래야만 한다고 믿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여기에서도 고전적인 철학적 개념들이나 이론들은 다양하고 심층적인 방식으로 참조는 되고 있지만, 그것들은 기획의 근본의도 때문에라도 결코 결정적인 준거가 될 수 없다. 그래서 그가 정통적인 철학사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 모욕 같은 개념을 나름의 방식으로 분석하고 있다거나

예컨대 정의의 이념에 대한 해석 같은 부분에서 많은 이들의 정당한 의문을 자아낼 것 같은 방식으로 접근할 때, 이는 단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의 접근법을 정말로 독창적이고 생산적인 것으로 만들어 준 원천인 것처럼 보인다. ‘필로소피아’로서의 철학 전통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한 우리의 맥락에서 볼 때 우리가 참조할만한 매우 훌륭한 ‘철학함’의 한 모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문제를 이렇게 접근해 보자. 앞서 잠시 살펴본 대로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마갈릿의 기획을 위한 원초적인 토대를 제공해 준 것처럼 보이는 유대인들의 홀로코스트 경험이나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의 야만 행위들만큼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사람을 모욕하는 일들이 일상적으로 벌어졌고 또 벌어지고 있다. 왜 우리의 철학자들은 이런 현실에 대해 마갈릿처럼 접근하려는 발상 같은 것을 하지 못했을까? 혹시 어쩌면 우리 철학자들이, 마갈릿과는 달리, 너무 정통적이고 고전적인 철학적 발상들이나 접근법에만 얽매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서구의 이런 저런 철학자들의 철학들을 ‘수입’하여 그것들을 ‘소개’하거나 기껏해야 그것들을 ‘적용’한다고 나서고, 하여튼 우리는 아직 이런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 여기서 우리 학문 일반이나 철학의 ‘식민성’ 같은 것에 대한 지적은 여전히 빠아플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조금은 상투적으로까지 들리는 이런 정도의 지적에 단순히 만족해해서도 안 된다.

마갈릿이 차용하고 있는 통상적인 이해를 빌리자면(146쪽 아래 참고), 우리는 도덕 문화의 유형에 따라 ‘수치심 사회’와 ‘죄책감 사회’를 나눌 수 있다. 후자는 구성원들이 사회적 규범을 내면화하여 그것을 위반할 경우 스스로 내적인 죄책감을 느끼는 사회이고, 전자는 사람들이 단지 외적인 명예를 유지하고 제제를 회피함으로써 수치를 겪지 않아야 한다는 동기에서만 사회적 규범을 따르려 하는 사회다. 그에 따르면 여기서 차이의 핵심은 자신의 부끄러운 행동이나 실패를 자신의 관점으로 보느냐 아니면 타인의 관점으로 보느냐 하는 것이다. 문제는 그와 같은 수치심 사회는 품위 있는 사회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품위 있는 사회가 중요시하는 자존감이 아니라 외적인 사회적 명예의 강등이나 훼손 같은 것만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관점이 옳다면, 어쩌면 우리 사회의 도덕 문화는 마갈릿이 문제 삼는 그런 차원의 모욕을 문제로서조차 인식하기 힘든 배경을 갖고 있는지도 모른다. 아니, 아예 태생적으로 마갈릿이 문제 삼고 있는 차원의 모욕 같은 문제를 심각한 도덕적 문제로서조차 여기기 힘든 사회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예’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 유교 문화는 내면적인 도덕적 지평보다는 외적으로 검증받고 평가받을 수 있는 행동 규범에 초점을 둔 도덕 문화를 발전시켜 왔기 때문이다.

물론 단순히 외적 규율을 강요하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깊은 내면의 자기가 지닌 본래적으로 선한 자질들에 대한 함양을 강조했던 유교 고전가들의 가르침을 생각해 보면, 유교의 도덕 문화를 오로지 수치심만을 아는 도덕 문화로 규정하는 것은 일방적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유교문화가 적어도 오늘날의 세속화된 조건에서 볼 때 큰 틀의 일상적인 양상에서 현세적이고 외적인 인정 관계에 대한 순응과 집착을 강조하는 도덕 문화를 발전시켜 왔다는 점은 부정하기 힘들 것 같고, 이런 사정은 우리에게서 마갈릿 식의 품위 있는 사회의 기획을 더욱 더 실현이 힘든 유토피아적 기획으로 다가오게 할 것처럼 보인다. 아마도 우리 대부분에게는 마갈릿이 사용하는 ‘품위’라는 말 자체부터 그가 염두에 둔 의미와는 전혀 다른 어감으로 다가올 텐데, 이는 우리가 가진 도덕 문화의 고유한 특성 때문일지도 모른다.

오해는 말자. 우리의 도덕 문화에 대한 비하가 초점은 아니다. 우리의 도덕 문화가 마갈릿이 초점을 두고 있는 그와 같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규범적 지향 자체를 갖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니다. 아니, 그런 지향은 우리 전통 속에서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넘치고 넘친다. 다만 어쩌면 이런 지향은 마갈릿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철학적으로 가공되어야 할 지 모른다. 나의 초점은 이렇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도덕 문화에 대해 충분한 자부심을 가지면서도 그것의 결점과

한계를 날카롭게, 그야말로 뿌리에서부터 비판적으로 해부할 수 있는 성찰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쩌면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마갈릿 식의 기획조차도 상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과 철학적 성취를 얻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결국 우리에게는 말하자면 우리의 마갈릿,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회를 위한 우리 나름의 기획 같은 것이 필요한 것처럼 보인다. 아마도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마갈릿에게서 제대로 배우는 것이 될 것이다.